

바다 온난화 지속 ... 서해 오징어 명물될까

수온·해수면 높아져 멸치·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 증가 부안·군산 일대 150척 조업 활발 ... 7월 첫 44톤 위판

군산수협이 최근 오징어 위판을 시작했다. 오징어는 동해안 대표 난류성 어종. 하지만 기후 변화로 여름철 서해로 이동해 어장이 형성되면서 서해에서도 위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서해산 오징어? = 전북도는 부안 왕등도 서방, 군산 어청도 북서방 일대에서 오징어 잡이가 한창으로, 지난 7월 중순 첫 위판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에서 오징어를 따라온 근해채낚기어선 150여척이 조업에 나선 상태로,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 18일까지 총 44t(2억5000만원 상당) 가량이다.

오징어 위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위판량은 ▲2012년 128t(4억1000만

원) ▲2014년 316t(8억8700만원) ▲2015년 709t(13억9900만원) ▲2016년 322t(12억1200만원) 등으로 꾸준하다.

전북도는 멸치 등 먹이를 따라 여름철 서해로 일시 이동해 9월 말까지 어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해 얼마나 따뜻해졌나 = 23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00~2000년) 평균 대기온도가 1.5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0.7도)을 넘어선 것으로, 연안 표층 수온도 남해의 경우 최근 30년간 1.04도, 서해는 0.97도 올랐다.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1969년부터 우리나라 해수면 높

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3.17mm), 동해안(2.12mm), 서해안(1.36mm) 등 전체 해역의 해수면이 연평균 2.48mm 상승했다.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폭(1.8mm)을 웃도는 것으로, 제주항의 해수면 상승(연평균 5.97mm)은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다의 변화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라 저층 한류성 어류는 남쪽으로, 표층 난류성 어류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등 남해안 물고기 지도가 바뀌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의 '남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자료는 한류성과 난류성 어류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조사 자료는 대표적 한류성 어류인 대구와 기름가자미의 분포가 제주도 인근까지 확대된 반면, 난류성인 제주도 명물 옥돔

은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류성 어류는 일반적으로 15℃ 이하 수온에서 나타나며 대표적인 어류로는 대구 등이 있다. 난류성 어류는 온대, 아열대 10~30℃ 수온에 사는 어류로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대표적인 난류성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의 40년간(1970~201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자료에서도 온대성 기후 어종인 멸치, 고등어, 오징어 등 3종류의 어획량이 40%(1970년대) 전후에서 60% 이상(1990년대 이후) 차지하는 등 난류성 어종 비율이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바다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한옥마을 안심하고 마음껏 둘러보자”

30일까지 ‘차 없는 거리’

평일까지 확대 시행

평일에도 전주한옥마을(사신)을 안심하고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가 여름 휴가철, 차 없는 거리로 운영키로 하면서다.

전주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 주 일간 한옥마을 전 구역의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옥마을은 지난해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성서로 통하는 여행잡지 ‘리틀 플래닛’과 미국 CNN의 아시아 3대 관광 명소에 소개되면서 연간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주말에만 차 없는 거리로 운

영되면서 평일을 이용해 마을을 둘러볼 경우 지나다니는 승용차로 인해 관광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여행객들이 적지 않았다.

전주시는 이같은 점을 반영, 여름 휴가 성수기에 차 없는 거리를 평일까지 확대해 적용토록 했다. 평일 차량 통행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요 구간 11개소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한옥마을 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가 성수기,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여유로운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강천산 환상캠핑 프로그램이 펼쳐질 병풍폭포 일대.



최근 준비를 마무리한 강천산 세족장.

“아름다운 빛의 숲’ 강천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창군 휴가철 맞아 시설 정비

병풍폭포 빔 프로젝트 활용 등

야간 산책로 빛의 향연 눈길

내달 11일~ 20일 환상캠핑

순창군이 여름 휴가철, 강천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순창군은 우선,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강천산 주변 편의시설을 정비했다.

눈에 띄는 시설은 병풍폭포 앞 세족장 설치 사업으로, 맨발 산책을 끝낸 관광객들이 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조성했다. 발을 씻는 기능 뿐 아니라 물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만들어 관광객들이 둘러앉아 발을 담그며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7~8월 여름철에도 하루에 찾는 방문객이 3만명이 넘는 유명 관광지인데다, 열을 처럼 차가운 깨끗한 계곡 물로 입소문이 난 점을 감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탐방시설 확충, 노후·위험시설 정비, 계곡탐방로 준설 등 12개 사업도 마

무리했다.

군은 아간에도 강천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른바 ‘강천산 환상캠핑’으로, 전국적 야간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상캠핑” 사업은 다음달 11일~ 20일까지 밤 8시부터 10시 30분간 강천산에서 ▲환상의 병풍도 ▲환상의 캔버스 ▲환상의 마을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입장료 외 별도의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 강천산 병풍폭포를 중심으로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야간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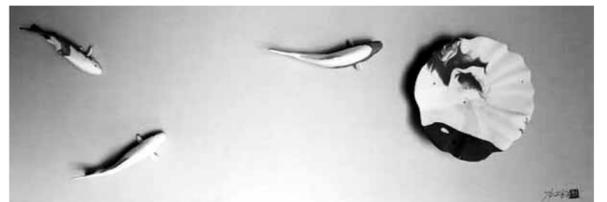
“병풍폭포 미디어파사드쇼는 병풍폭포와 가을에 빔 프로젝터를 활용, 다양한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캔버스”는 빛으로 그리는 암벽스케치북, 관광객이 그리는 빛의 그림이 암벽 표면에 실시간으로 형상화돼 나타난다.

“마을 티피넌트존”도 눈여겨볼만하다. 병풍폭포구역 내 8개의 티피넌트를 만들어 다양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순창군은 이외 음악공연, 환상의 타로카드, 밤에 빛나는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야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강천산은 낮에도 아름다운 산이지만 밤도 아름다운 빛의 숲으로 이름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민기자 jyg@kwangju.co.kr



김광길 서남대 교수의 'Lotus Leaf Story-여름'.

도공 28인의 숨결, 남원서 느낀다

현대도예전 개최 ... 내달 25일까지 예가람길 미술관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 살다가 일본으로 끌려가 현지에서 도자의 맥을 이어온 조선 도공을 기리는 전시가 마련됐다.

남원 예가람길 미술관이 마련한 ‘조선 도공을 그리며’전은 국내 21개 대학교 수 등 현대도예작가 28명의 독특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작가들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뒤 일본의 도자문화를 꽃피운 조선의 도공을 기리며 전통미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남원에서 열리는 국제도예캠프를 5년째 이끌고 있는 김광길 서남대 교수의 연임을 주제로 한 작품을 비롯, 현대도예작가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전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 무정면 오레리 1495㎡ 창평에서 15분 4800만원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광주에서 100분 거리 바닷가 대지 607㎡ 팬션적합 2층주택 1억2천
-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2896㎡ 전망좋은 2억2백
- 급매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4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구 양과동 그린벨트·주택 땅 9958㎡ 투자가치양호 17억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영암군 신북면 상업지 2535㎡ 은행4억5천 공사기 매도 5억8천
- 월파리내면 양동 상업지역 367㎡ 주상복합 적합 4억8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 오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은 7억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6천
- 월산동 4차선과 2차선접 땅 129㎡ 철근조 2층상가주택 2억6천
- 충장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좋은 9억6천
- 월산동 농성초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은행 3천 매도 1억천
- 유동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룸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팬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